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11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각각 1어절로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작문 평가 상황에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신뢰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의 문제로, 동일한 검사를 반복 시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유사하게 도출되는 정도를 가리킨다. 작문 채점 상황에서는 최소 2명의 채점자가 (㉠)적으로 채점할 것이 권장된다. 채점자 간 신뢰도를 추정하려면 채점자가 상호 (㉡)적으로 채점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문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점자 교육을 통해 채점자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 척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점자들이 작문 평가 척도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채점자들마다 평가 척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 척도의 점수에 대응하는 각각의 전형적인 (㉢)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는 평가 척도가 구현된 양상을 글의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텍스트를 가리키는데, 이를 활용하면 평가 척도가 채점 상황에서 어떻게 부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진다.

2.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되 ㉠은 1어절로, ㉡은 3어절로 쓰시오. [2점]

(가)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장즈 세슬장즈 들장즈 열장즈에 암들적귀 수들적귀 비묵
 걸시 썩다 박고 크나큰 즘을쇠로 숙이숙이 츠엿는디 병풍(屏風)
 이라 덜겨 접고 족자(簇子) | 라 덕디골 말고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즘 못 드러 흐노라
 - 작자 미상 -

(나)
 초장에서 화자는 추상적 존재인 ‘한숨’을 의인화된 침입자로 설정함으로써 물리적인 행위가 불가능한 존재를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틈’의 의미에 주목할 때 ‘한숨’의 성격은 대단히 집요하다.
 이어지는 중장에서는 ‘한숨’의 침입을 막아 내기 위한 작중 화자의 고안이 ‘고모장즈’에서 ‘크나큰 즘을쇠’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물들의 숨 가쁜 열거를 통해 제시된다. 또한 중장의 (㉠)은/는 어떤 식으로든 ‘한숨’을 막아 내겠다는 화자의 강인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는 화자의 물리적 행위가 신중하고 또 치밀함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숨은 이 삼엄한 방비를 뚫고 들어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바, (㉡)에서 알 수 있듯 화자는 자신이 느낀 그것의 강렬함을 과장의 수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의인화된 ‘한숨’은 중장에 이르러 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로 각인된다. 이제 화자는 이 달갑지 않은 침입자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추상적 대상을 물리적 방법으로 막아 보겠다는 희극적 발상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고난이 우리네 삶의 과정에서 언제든 마주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존재라는 씁쓸한 삶의 진실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을 읽고, 준언어·비언어 의사소통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사: 오늘은 준언어·비언어 의사소통을 공부해 봅시다. 다음의 가상 일기문을 읽어 봅시다.

지난주에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 함께 참가한 미술 대회에서 입상한 그 친구를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음료를 었지른 것이 다툼의 계기였다. 그리고 오늘,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그 친구 말로는 그날 내가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는데 내내 표정이 밝지 않아 뭔가 못마땅해한다고 느꼈다고 한다. 자신이 이야기할 때 내가 자꾸 눈살을 찌푸려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고도 한다. 그러던 차에 음료를 었지르자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친구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화해의 약속을 한 뒤 돌아와 생각해 보았다. 의도치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기분이 표정에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

교사: 친구는 '내가 말로는 축하하는데 표정에서는 못마땅해하는 마음을 느꼈군요. 친구는 '나'의 말과 표정 중 무엇이 더 진심을 담고 있다고 여겼을까요?

학생: 표정요. '나'의 표정을 보고 '나'가 실은 못마땅해한다고 여겼고, 그래서 음료도 일부러 었질렀다고 오해한 것 같아요.

교사: 잘 설명했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말과 표정이 불일치할 때 어느 쪽을 더 신뢰하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소통 중 타인의 언어적 메시지와 준언어·비언어적 메시지가 상충할 때 대체로 (㉠). 왜냐하면 (㉡).

학생: 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의사소통에서 준언어와 비언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교사: 네, 맞습니다. 그 밖에도 준언어·비언어가 의사소통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중 하나는 대화에서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쳐 대화 시작의 의도를 알리거나, ㉢ 준언어를 활용해 순서 교대의 적정 지점을 알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해요. 일기문에서 '나'가 눈살을 찌푸려 친구가 말을 잇지 못한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학생: 또 다른 역할은요?

교사: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 군대에서 거수 경례를 하는 것, 예배드릴 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려 기도하는 것, 일기문에서 '나'와 친구가 화해의 뜻으로 악수한 것 등이 ㉣ 또 다른 역할을 보여 주는 사례들입니다.

<작성 방법>

-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서술할 것.
- ㉢의 구체적인 예를 1가지 제시하고, ㉣이 무엇인지 서술할 것.

4. 다음을 읽고, 읽기 방법의 지도 내용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 자료

1. 학습 내용 안내

- ① 추론적 읽기: 글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필자의 관점 파악하기
- ② 비판적 읽기: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표현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2. 읽기 자료

자료 1 공중화장실에는 휴지가 늘 부족하다. 무상 제공되므로 사람들이 휴지를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기 때문이다. 공중 화장실 이용자들이 휴지를 아껴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료 2 공중화장실에는 휴지가 늘 부족하다. 자원 절약을 핑계로 휴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관리 기관이 휴지를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

(나) 수업 기록

교사: 글을 읽을 때는 ㉠ 필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점에 따라 문제의 원인은 물론 해결 방안도 달리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1**은 결론에서 행동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고 있나요?

학생 1: 공중화장실 이용자입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자료 1**은 문제의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2**는 결론에서 행동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고 있지요?

학생 2: 공중화장실 관리 기관이네요.

교사: 네, 맞아요. **자료 2**는 문제의 책임을 관리 기관으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바탕으로 두 글은 ㉡ 문제의 원인 진단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자료 1**은 두 번째 문장에서 가치 판단이 담긴 '낭비'라는 어휘를 사용해 문제의 원인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료 2**의 두 번째 문장에서도 가치 판단이 담긴 표현을 찾아 볼까요?

학생 2: [A]

교사: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두 글은 마지막 문장에서 ㉢ 문제 해결 방법까지도 각각 휴지 아껴 쓰기와 적시의 휴지 공급으로 달리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료 3**을 **자료 1**과 비교해 볼까요?

자료 3 공중화장실에는 휴지가 늘 부족하다. 무상 제공되므로 사람들이 휴지를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는 것이 원인이다. 자판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유료화해야 한다.

<작성 방법>

- [A]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표현을 찾고, 그 표현의 효과를 ㉠의 측면에서 서술할 것.
- **자료 3**이 ㉡의 측면에서 **자료 1**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설명할 것.
- **자료 3**이 ㉢의 측면에서 **자료 1**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문제 해결 주체를 고려하여 설명할 것.

5. 다음을 읽고, (1ㄴ), (1ㄷ)과 (2)의 중의성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의미론적으로 문장에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장에 쓰인 어휘나 문법 형태소가 다의적이거나 동음어가 있을 때 중의성이 발생한다. 둘째, 문장의 통사 구조가 둘 이상으로 분석될 경우 중의성이 발생한다. 셋째, 부정(否定) 표현, 수량 표현, 보조사 등의 의미가 어느 부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한다. 이 중에서 통사 구조와 관련된 둘째가 가장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1) ㄱ. 예쁜 언니의 모자
 ㄴ. 영수는 아주 새 차를 좋아한다.
 ㄷ. 진희는 울면서 떠나는 선주를 배웅했다.

(1ㄱ)은 ㉠ ‘[예쁜 [언니의 모자]]’와 ‘[[예쁜 언니]의 모자]’의 두 가지로 통사 구조가 분석되어 중의성이 발생한다. (1ㄴ)과 (1ㄷ) 역시 통사 구조가 두 가지로 분석되어 중의성이 발생한다.

한편 (2)에서 발생하는 중의성은 화행적 의미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중의성의 양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어제 덥지 않았니?

—<작성 방법>—

○ (1ㄴ)과 (1ㄷ)의 중의성이 드러나도록 각각 2가지 통사 구조를 ㉠의 형식으로 제시할 것.
 ○ (2)의 중의성을 문말 억양을 언급하며 설명할 것.

6. 다음을 읽고, 중세 국어 선어말 어미와 그 변천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국어는 교착어에 속한다. 교착어의 가장 큰 특징은 문법 형태소가 발달해 있다는 것인데, 교착어의 문법 형태소는 일반적으로 형태와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또한 하나의 어간에는 여러 개의 어미가 연속적으로 붙을 수 있다.

(1)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시었겠습니까.

(1)에서 ‘-으시-’는 주체 높임, ‘-었-’은 과거 시제, ‘-겠-’은 추측 양태를 표시하는 형태소이다. 각각 형태와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데, ‘-습니다’만 하나의 형태가 상대 높임과 문장 유형이라는 두 가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2) ㄱ. 내 룡담_하다라 <석상 6>
 ㄴ. 그릿 싹_를 맞고져 _하더이다 <석상 6>
 ㄷ. 내 이제 分明(분명)히 너드려 _하리오리라 <석상 19>

중세 국어에는 하나의 문법 형태가 여러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좀 더 흔하였다. 예컨대 중세 국어 (2ㄱ)의 ‘-다-’를 화합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 .

한편 실질 형태소든 문법 형태소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와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예컨대 중세 국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역사적 변화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3) ㄱ. 姝女(채녀) | …太子(태자)를 쁘려 안스_하 <월석 2>
 ㄴ. 벼슬 노퍽 臣下(신하) | 님그믐 돕스_하 <석상 9>
 ㄷ. 부텃과 이런 마를 몬 들즈_하 <석상 13>
- (4) ㄱ. 신께서 제게 재능을 주시오_니 저는 고마울 뿐입니다.
 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사오_니 너무 걱정 마세요.
 ㄷ. 소문을 듣자오_니 길동이가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15세기 국어 (3)에 쓰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역사적으로 형태가 변하였고, 그와 함께 의미도 변하였다. 현대 국어 (4)의 ㉡ ‘-오-’, ‘-사오-’, ‘-자오-’는 각각 15세기 국어 (3)의 ㉢ ‘-술-’, ‘-술-’, ‘-줄-’이 음운 변화를 겪은 결과물과 관련된 형태로서 그것들과는 다른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작성 방법>—

○ ㉠에 들어갈 말을 (2ㄴ)과 (2ㄷ)의 문법 형태소가 실현된 양상을 언급하며 쓸 것.
 ○ (3)과 (4)를 참고하여 ㉢과 대비되는 ㉡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하고, ㉡의 문법적 의미를 설명할 것.

7. 다음을 읽고, 국어의 음운 /ㄹ/, /w/가 보이는 양상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십시오. [4점]

자음, 모음 그리고 /ㄹ/, /w/를 [±자음성], [±모음성] 자질로 나타내면 (1)과 같다.

(1)

	자음	모음	/ㄹ/	/w/
[자음성]	+	-	+	-
[모음성]	-	+	+	-

/ㄹ/가 [+자음성, +모음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2)에서 보이는 양상 때문이다. (2)에서 보듯이 /ㄹ/는 때로는 ㉠ [+자음성]의 양상을, 때로는 ㉡ [+모음성]의 양상을 보인다.

(2)

ㄱ.	물-이 (맑다)	밥-이 (맛있다)	배-가 (고프다)
ㄴ.	알-면	보-면	먹-으면

/w/는 [-모음성, -자음성] 자질을 가진 음운이다. [-모음성] 이어서 모음도 아니지만, [-자음성]이어서 자음도 아니다. /w/가 보이는 이러한 속성 중에서 (3ㄱ)과 비교할 때 (3ㄴ)은 ㉠[-자음성]의 양상을, (4ㄱ)과 비교할 때 (4ㄴ)은 ㉡[-모음성]의 양상을 보이는 예이다.

(3)

ㄱ.	감기[가*끼]
ㄴ.	삼월[사뿔]

(4)

ㄱ.	와[와]	아[아]
ㄴ.	와[와]	[*w]

■ '*는 불가능한 음절을 나타냄.

—<작성 방법>—

- (2)를 분석하여 ㉠, ㉡을 각각 설명할 것.
- (3)과 (4)를 분석하여 ㉢, ㉣을 각각 설명할 것.

8. 다음은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설계의 일부이다. '교수·학습 계획'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 제재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릿잎 몇 장 더 없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라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千佛山)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

(나) 수업 참고 자료

매운 계절의 찻죽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우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다) 교사의 수업 연구 일지

이번 문학 수업은 「마음의 수수밭」을 제재로 선정하였다. 1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제목의 의미에 비추어 주요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시가 화자의 마음을 수수밭이 있는 장소에 비유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할 것이다.

2차시 수업에서는 화자의 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시적 대상들의 특성을 구별해 보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시에 나타나는 시상의 상승 구조가 화자의 마음 상태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도록 해야겠다.

3차시 수업에서는 작품의 해석 맥락을 확장해 볼 것이다. 유사한 시상 전개 방식이 나타나면서 화자의 행위와 위기 상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연계되어 있는 다른 작품과 비교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육사의 「절정」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라) 교수·학습 계획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에 유의하여 작품 해석하기	
2차시	㉠ 대상: 「마음의 수수밭」 • 시상의 상승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과 '푸른 것들'의 특성을 구별하여 말해 보자. ㉠ • '푸른 것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시적 대상들을 찾고 그것의 함축적 의미를 말해 보자.
상호텍스트적 맥락을 활용하여 작품 해석 확장하기	
3차시	㉡ 대상: 「마음의 수수밭」, 「절정」 • 관점 전환 계기의 차이점을 '보는 것과 연관된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자. ㉡ • 관점 전환 내용의 공통점을 위기 상태에 대한 화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자. ㉢

—<작성 방법>—

- ㉠의 활동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모범적인 해석을 서술할 것.
- ㉡과 ㉢의 활동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모범적인 해석을 각각 서술할 것.

9.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앞부분 줄거리] ‘나’는 예전에 살았던 산동네를 방문하던 중 한 집에서 아홉 가구가 살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눈이 내린 어느 날 새벽녘에 변소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남의 집 단지를 깬다.

사태는 명백하고도 돌이킬 수 없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나는 삭풍이 부는 황량한 벌판으로 변한 마당 가에 서서 힘이 주욱 빠져나간 두 어깨를 거느리며 고개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오, 하느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러나 무거운 눈을 밤새 다 털어 버린 새벽하늘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내 혼잣소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누워 있는 그 시커먼 빠루가 마치 마녀의 주문을 받아 밤새 뿌린 눈송이를 덮고 위장한 채 기다리다가 내 발길을 일부러 잡아채지나 않았는가 하는 엉뚱한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나는 어린애답지 않게 몹시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 그것은 내가 그 순간 혈떡이고 있었던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해 줄 수 있었다. 피로하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감…… 하긴 어찌 피로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기절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내가 피로해야 하는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절하는 것이었다. 기절이라도 하고 나면 이 세상에 뭔가가 달라져 있겠지. 혹은 최소한 모면의 여지는 남겠지 하는 맹렬한 위안이 달라 붙었다.

…(중략)…

그러곤 어느덧 해 질 녘…… 이미 비밀이 다 까발려졌을 아홉 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게 일제히 안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물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에 기대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돗가에 물러나와 쌀을 일며 화기에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수돗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았다.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다.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 두었던 변소 통 쪽을 돌아다 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물론 흉측한 물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짚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습푸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었다.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

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릴 듯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쯤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러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초부터 에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녀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문을 생각은 어찌했담.”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니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러고는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쫓다.

“그래 탄 데는 안 들르고?”

“오다가 저기 전에 살던 기찻집이라고 있어요. 옛날 침례교회 밑에 말예요.”

“으응, 있었지.”

“거기 뭐 볼 게 있어서 들어가려다 개 조심이라고 썩어 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보니까 너무 바뀌었어요. 지붕도 기와에서 슬래브로 바뀌고 마당 쪽까지 집을 새로 지어서 반지하까지 치면 이 층이나 다름없어요.”

형이 고개를 건성으로 주억거렸다.

-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

<보 기>

기억에 오래 남아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읽매임을 받게 되는 어린 시절의 체험을 원체험이라고 한다. 도시 빈민의 아들로 자란 김소진의 소설에는 그의 원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은 담론 차원에서 ㉠ 서술 자아와 경험 자아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거나 ㉡ 서술 자아가 경험 자아의 과거를 보여 주면서 그것을 종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야기 차원에서는 어른이 된 경험 자아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 죄책감과 ㉣ 당혹감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이는 심리적 상처를 동반하는 원체험을 주로 다루는 그의 작품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작성 방법>

- ㉠과 ㉡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을 각각 찾아 1개씩 쓸 것.
- ‘나’의 정서가 ㉢에서 ㉣로 전환되는 이유를 인물의 인식 변화 측면에서 제시하고, ㉣을 표상하는 신체적 반응이 무엇인지 찾아 쓸 것.

10.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어름 우희 댕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어름 우희 댕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정(情) 둔 오늬 범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1연)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즈미 오리오
 셔창(西窓)을 여러 하니 도화(桃花) | 발(發)호두다
 도화는 시름 업서 쇼춘풍(笑春風)호느다 쇼춘풍호느다 (2연)
 - 「만전춘별사」 -

(나)

연광(年光)이 속홀(倏忽)호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호여
 봄벼람 가을 물이 배오리의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엿고나
 내 얼굴 내가 보니 어니 님이 날 필소나
 스스로 참괴(慚愧)호니 구구(口口)를 원망(怨望)호리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治遊園)의 새사름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믄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이서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 어디 머튼노고
 원근(遠近)을 모라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나
 인연(因緣)을 쫓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로려믄
 열두 째 김도 길샤 설혼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츠고 츠 제 자취눈 섯더 치니
 너름날 길고 길 제 구즌비는 무삼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 업다
 7을 달 방(房)의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의 울 제
 긴 하숨 짓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샤
 도로혀 플쳐 헤니 이리호여 어이호리
 - 허난설헌, 「규원가」 -

(다)

시간은 ‘자연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시간은 천체의 주기성에 기반하여 측정되는 객관적 시간이며, 심리적 시간은 말 그대로 주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자는 객관적 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해당 시간을 경험하는 ㉠ 주체의 처지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주체의 처지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공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공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주체가 거처하는 좁은 범위의 장소뿐만 아니라 그 장소 너머의 ㉡ 외부 세계에까지 미치는데, 주체의 처지는 특정한 정서를 낳고, 그 정서의 종류에 따라 공간에 대한 인식 역시 다양하게 발현된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은

인간의 감정을 주로 다루는 서정시에서 정서의 추상성을 구체화하는 데에 밀접하게 관여한다.

<작성 방법>

- ㉠을 중심으로, (가)의 1연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적 시간 인식을 설명하고 (가)의 2연에서 추정할 수 있는 화자의 심리적 시간 인식을 서술할 것.
- (가)와 (나)에서 ㉡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 공통의 표현을 찾아 쓰고, 이를 활용하여 두 작품의 정서 형상화 방식을 화자와 ㉡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11. 다음을 읽고, 작품의 특징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김생이 말했다.
 “사람이 말보다 못하단 말이오?”
 영영이 말했다.
 “말은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생이 말했다.
 “그대가 어찌 다만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소?
 안색이 초췌하고 모습이 마른 게 저번과 같지 않으니 어찌
 그대가 나를 보지 못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겠소?
 그대는 내가 아니니 어찌 내 마음을 알겠소?”

[A]

영영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한 그대도 제가 아닌데 어찌 제 마음을 아십니까?”
 김생이 자리를 가까이 옮겨 앉으며 사실대로 말했다.
 “아, 난향이여! 그대가 어찌 무정한 사람이겠소? 처음
 만나 말을 나누지 못한 이래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
 하면서도 서로 보지 못했던가? 아, 난향이여! 그대인들
 어찌 슬프지 않겠소? ㉠ 내가 낭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낭자가 왔으니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소.”
 영영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중략 줄거리] 김생과 영영은 사랑을 확인했지만 결국 이별한다. 이후 김생은 장원급제하였고, 풍악을 울리는 광대패와 함께 거리를 지나게 된다.

길가를 보니, 백 보쯤 걸어야 할 만큼 크고 높은 궁이 보였다.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희롱하는 나비와 벌들이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김생이 물으니 회산군(檜山君) 맥이라고 하였다.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궁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다.

이때 궁 안은 회산군의 죽음으로 삼년상을 치른 후, 궁인들이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다. 그동안 회산군의 부인은 마음 붙일 곳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 무늬 자리에 눕게 하였다. 김생은 여전히 어지러운 듯이 누워 있었다.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다. 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드리우고 있었는데, 주렴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영영이라고 하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다.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녀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 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 보고는 거짓으로 놀라며 말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희이라는 자가 달려와 아뢰었다.

“회산군 댁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희가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회산군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워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 작자 미상, 『영영전』 -

(나)

[A]의 대화는 중국의 여러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원으로 삼는다. 가령 ㉠은 탕 임금의 어느 지역을 정벌하러 갔을 때 그곳의 백성들이 탕 임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탕 임금이 와서 자신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맹자』의 한 대목을 인유(引喻)한 것이다. 경전에 해박하면서도 이를 지적 유희의 맥락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 전대의 애정 전기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성격을 이어받으면서도 발랄한 인물형으로 재창조한 『영영전』의 개성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 인물의 이러한 성격 변모는 주인공들의 재회를 둘러싼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국면에 전이되어 나타나고, 그 결과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초현실성이 제거된 채 세속적 일상성의 논리에 포섭되는 모습을 보인다.

<작성 방법>

- (나)를 참고하여 ㉠에서 ‘나’와 ‘낭자’가 어떠한 관계로 비유되었는지 쓰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인유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의미를 서술할 것.
- ㉡에 해당하는 인물형을 1어절로 쓰고, (가)에서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

<수고하셨습니다.>